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빈손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마음을 다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헤아리다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생기를 잃고 있습니다. 6월의 녹음은 싱그러운데, 우리 영혼은 미열에 들뜬 사람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지진과 화산 폭발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따뜻한 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고전6:19-20	인도자
----------------	-----------------	-----

♠ 교 독 문	63. 성령강림절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김지은 선생 II. 구성실 장로
------------	-------------------------

응답송	찬양대
-----------	-----

찬 송	178.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함께
-----------	-------------------------	-----

성경봉독	I. 요8:31-33	인도자
------------	-------------------	-----

II. 행2:42-47	박혜경 권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진리를 따라	최인환전도사
-----------	-----------------	--------

II. 새 술에 취한 사람들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395. 너 시험을 당해 다함께
 헌금봉헌 <이용한 장로/오성희 권사>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새 삶의 가능성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나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를 성령
 의 전으로 삼아주십시오. 팍팍하고 냉랭한 세상에 생명이
 자랄 틈을 만들고, 그늘진 이들의 가슴에 기쁨과 감사의
 불꽃을 지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이
 중심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2남선교회 주최예배	6월 기도의 밤
말씀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양재성 목사	한지혜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김중수 권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근중	김용길	구명자	최숙화	최영혜
	헌금위원	방문성	김용진	윤주원	김애경	박혜경	문인옥

현실과 이상

파리에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윌슨과 로이드 조지 그리고 끌레망쇼의 사진! 윌슨은 분명히 그의 전쟁에서 패했다. 그는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올림푸스 산에서 번개를 던졌더라면. 만일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명백하고도 중요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들과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보다는 편지를 쓰는 편이 낫다. 개인적 접촉은 원 거리 협상에 비해 타협을 피하기 어렵다.

파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른 이들이 그 진정한 취지를 옹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들은 윌슨으로 하여금 그 계약을 재가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실은 몇 개의 단어로 바뀌었다. “배상금은 없을 것” 이지만 배상은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손실이 컸기 때문에 배상의 규모는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 클 것이다. “영토 합병”은 없겠지만 위임통치는 있을 것이다.

윌슨은 가난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의 전형이다. 그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신뢰한다. 교활한 끌레망쇼는 그 멋진 말들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끼워 넣었다. 어찌면 그는 로이드 조지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로이드는 탄복할만한 협상가이다. 그는 세속적으로는 끌레망쇼 만큼이나 현명하고 윌슨과 버금갈 정도로 복음적이다.

하지만 누가 알랴? 시간은 윌슨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단어들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박탈하기란 어려운 법이고, 생각들은 시간 속에서 구현될 것이다. 국제 연맹은 당분간 승전국들의 연합체가 되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구세적(救世的)인 아이디어를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이상을 물리치지만, 이상은 잠정적으로나마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사실들에 대해 보복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악마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그들이 표면상 구현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 결과 진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1919)

그릇된 희망을 피하도록 한다는 것

병원으로 Z양을 방문했다. Z는 내가 그녀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 후부터는 그녀를 찾아가는 것이 즐겁다. 그녀의 건강 상태를 묻는 내게 의사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앙은 육체적인 형편을 넘어 영혼을 고양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분명한 것 같다. 내가 두려워하며 한사코 피하려고 했던 것은 그릇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때로 내가 나 자신을 일을 척척 해내는 유능한 의사와 간호사들과 비교할 때 나는 내가 마치 20세기에 내던져진 옛날 주술사가 된 느낌이었다. 나는 그들도 나에게 대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다루는 엄밀한 과학자처럼 일한다면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다. 나는 미신과 미신이 아닌 것이 뒤엉켜 있는 점이지대(漸移地帶)에서 일해야만 한다. 나는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음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의 치료의 많은 부분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종교는 유기체적 질환보다는 기능적 질환에 더 치료적 유용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병상에 찾아가서도 한결같이 정직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도 Z양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그녀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는 그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다.(1919)

전문성

Z양의 질병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그 고통의 침상에서 돌아온 후에는 거의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좀더 많은 환자들을 경험한다면 조금은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도 같다. 전문성에 대해 말해보자!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감성적인 자원들을 보존하기 위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가싶다. 나는 오후에 한 사람을 심방하고 돌아오면 그걸로 끝이다. 그에 비해 의사는 많은 사람들을 진료한다. 그는 감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게 아닐까. || 라인홀드 니버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구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무엇보다 좋은 체험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꼬집어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가장 좋은 선택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과 우리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할 때는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므로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습관화되어 모든 것에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철을 탈 때 승차권만 구입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지만, 누군가가 레일을 깔았고 누군가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전철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의식한다면 거듭 감사로울 것이고 적어도 같은 전철에 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발렌타인 L. 수자, <<님은 바람 속에서>>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권혁순 박혜경 김중수
 이순정 정현주 안종일 오진훈 노순옥 장성호 이봉옥 최종원 최숙화
 김정길 배상순 이유선 방극숙 박영희 김희진 박홍재 김민주 고광승
 이춘희 김금순 김애경 박성수 양재성 임미심 임고운 배제선

월정헌금:

장재영 김애경 하정석 이명희 김현연 정원석 윤성종 김윤정 정미경
 이동천 황경순 김수연 이광섭 정두리 박석희 조항미 왕수명 황원순
 이소순 황자순 서정순 홍복선 최철수 곽권희 박범희 박미영 박찬정

감사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용진 김성한 조영순 권혁숙 박혜경 김영순 권채영
 이동은 조순덕 이용한 오성희 최미선 안종일 정현주 배상순 박영희
 무명2

생일감사헌금: 이인섭 이재구 김지호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하 재 두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문 인 옥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진 경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춘 려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임 미 순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명 희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최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방 극 숙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절** :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강림절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제2남선교회 주취예배로 모입니다.
3. **선교회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2/4분기 선교회장 모임이 3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4. **기도의 밤** : 6월 기도의 밤 모임이 7일(수)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영적인 재활성화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5. **봉사** : 종묘 급식 봉사에 참여해주시십시오. 6월 7일(수) 오전 11시 15분, 종묘 정문 옆입니다.
6. **빈그릇 서약** : 다음 주일(11일)은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빈그릇 서약식이 있습니다.
7. **아트 북 전시회** : 다음 주일에는 환경부가 준비한 아트 북 전시회가 청년 회실에서 열립니다. 재활용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8. **재해구호헌금** :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11일)에 구호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동참해주시십시오.
9. **기획위원회** :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마스터 플랜 작성을 위한 기획위원회가 담임목사실에서 열립니다.
10. **신앙실천** :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십시오. 날마다 인도네시아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구호헌금을 준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 헌화 : 박창운 허정윤 권사 (결혼 기념)

<새교우 소개>

2619 맹은선 소속: 4 여선교회

2620 김영순 소속: 나오미 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